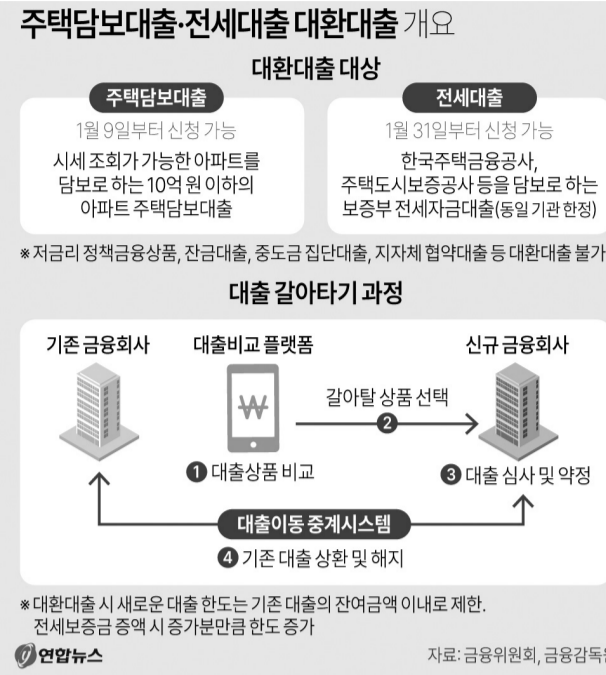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로 갈아탄다

10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보증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가계부채 억제 위해 갈아타기시 한도 증액·만기 연장 불가

보다 적은 이자를 찾아, 비대면으로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화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

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 의무화했으며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하겠다"며 "금융결제원·업권별 협회와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당정은 특례보증지리론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추진해왔다"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 갈아타기는 시장 경쟁 촉진으로 국민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 상품권 패키지 한정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본점 10층 롯데백화점 상품권 데스크에서 오는 2월 8일까지 '설 상품권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 상품권 패키지는 각 200만·300만·1000만·5000만·1억원 이상 현금 구매 시 구매 금액별로 1%~3.5%의 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법안카드로 구매할 시 최대 1%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각각 추가 증정한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설 상품권을 선보이는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 주식 거래 2달 연속 증가

매수 3조2089억·매도3조2765억
거래량 1위 공모주 두산로보틱스

광주·전남지역 주식 거래량이 2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뜨거운 공모주였던 두산로보틱스의 강세가 이어진 데다 삼성전자도 '8만전자'에 근접하면서 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장 진입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달 미국 국제 금리 하락 및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맞으며 주식 위기감이 완화된 데다,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2개월 연속 주식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3년 12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지난달 매수거래대금은 3조2089억원으로 전월(2조7943억원) 대비 41.46% 증가했고, 매도거래대금은 3조2765억원으로 전월(2조7830억원)에 견줘 49.35% 증가했다.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늘었다. 지역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6405억원에서 1조6889억원으로 48.4% 증가했고, 매도거래대금은 1조7114억원에서 1조8659억원으로 15.45% 증가했다.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1조5683억원에서 1조9344억원으로 36.1% 증가했고, 매도거래대금은 1조5650억원에서 1조9040억원으로

3390억원(21.66%) 증가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은 두산로보틱스였다. 공모주였던 두산로보틱스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지난달 958억 매수, 956억 매도되는 등 재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뒤이어 2차전지 관련 주인 에코프로머티, POSCO홀딩스 순으로 매수·매도가 많았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2차전지 관련주 강세 속 5위권밖에 머물렀다, 지난달부터 강세를 보이며 거래량이 크게 늘어 많이 매수한 종목 4위에 올랐다. 코스닥도 여전히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은 에코프로비엠으로 1002억 매수됐고, 953억 매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거래량은 지난 11월 대비 크게 변동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2차 전지주 거래 열기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거래 순위에도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민연금, 의학 심사 자문의사 의촉

정광철 드림정형외과 원장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중선)는 정광철 드림정형외과(광주시 북구) 원장을 의학

적 심사 자문의사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심사 업무와 함께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심사 업무의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 구축과 심사 전문성을 강

화하고 있다. 광주지역본부는 기존 지체장애, 청력, 신장장애 및 기초수급자 의학적능력평가 이외에 전년도 7월에 뇌병변장애(언어, 지적장애) 심사 업무 등을 본부에서 이관받아 연간 3만2000여 건의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7.82 (-10.26)
↑ 코스닥	879.34 (+1.01)
↑ 금리(국고채 3년)	3.297 (+0.014)
↑ 환율(USD)	1316.00 (+0.60)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